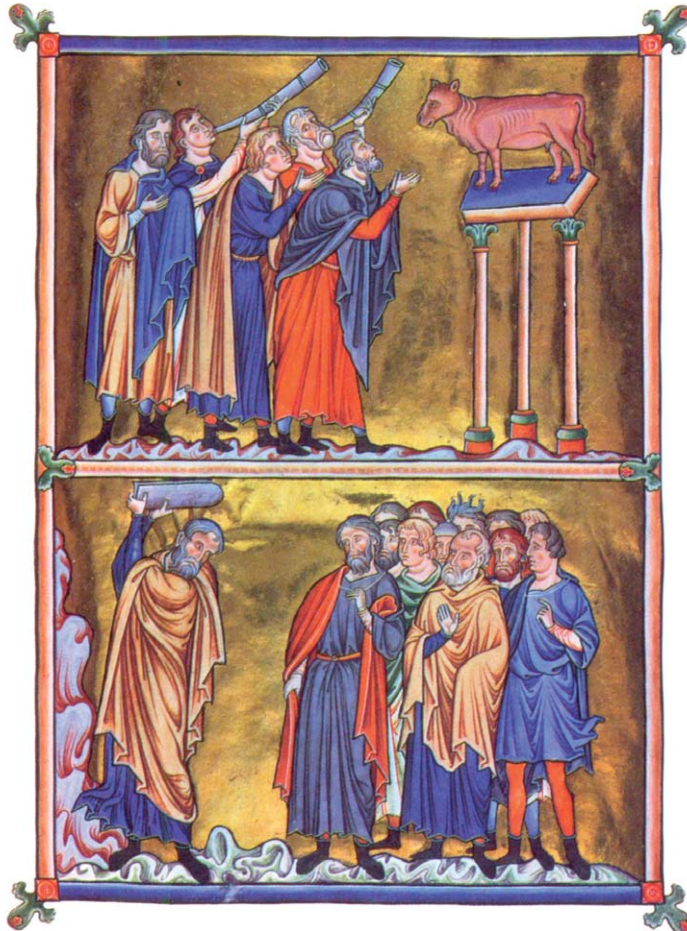


발행인: 정진석 | 편집: 서울대학교 문화홍보국 |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5 교구청별관 3층 천주교 서울대학교 문화홍보국 | 홈페이지: www.catholic.or.kr



〈황금송아지 숭배와 십계명판을 부수는 모세〉, 중세 시기, 채색 삽화

### 성화해설

이 작품은 중세에 교회에서 사용하던 시편집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상단에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처럼 숭배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하단에는 모세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백성들을 보고 대로(大怒)하여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판을 땅 바닥에 던지려는 모습이 담겨 있다.

**입당송** 시편 86(85),3,5

**제1독서** 신명 4,1-2,6-8

**화답송** 시편 15(14),2-3ㄱ,3ㄴ-4ㄴ,5(㉠ㄱ)

◎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 수 있으리이까?**

- 흠 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하며, 마음속 진실을 말하는 이, 함부로 혀를 놀리지 않는 이라네. ◎
- 친구를 해치지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이라네. 그는 악인을 업신여기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존중한다네. ◎
- 이자를 받으려 돈놀이 않으며, 죄 없는 이를 해치는 뇌물 받지 않는다네. 이 모든 것 행하는 그 사람, 영원토록 흔들림 없으리라. ◎

**제2독서** 야고 1,17-18,21ㄴ-22,27

**복음환호송** 야고 1,18

◎ **알렐루야.**

- 하느님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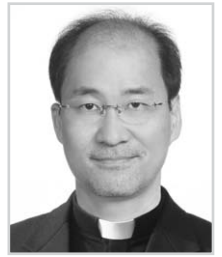
**복음** 마르 7,1-8,14-15,21-23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영성체송** 시편 31(30),20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 사랑이 먼저입니다



이규성 토마스 신부 | 예수회,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사회를 떠나서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인 곳에는 준수되어야 할 규칙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만일 그 규칙이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사회는 비인간적인 상황으로 전락하여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의 존속을 위하여 규칙을 제정하고 준수하는 것은 그 사회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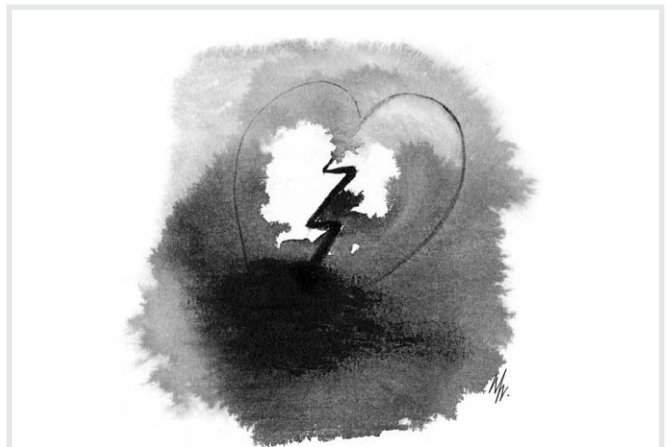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러한 규칙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이 백성이라고 불리는 한, 그들 사이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시키는 법규는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을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인간들 사이에서만 사회를 이루는 집단이 아니라 하느님과 관계에서 이루어진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스스로 법규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그 법규는 오히려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내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즉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 사회를 유지시킬 수 있는 율법 규정과 법규들을 이스라엘에게 선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법규는 하느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선사된 것이기에 그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가운데 법규를 이해하고 실행한다는 것은 사실 그의미를 반감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율법 규정과 법규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키신 사랑의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그 법규이해와 실행은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그 충분한 의미에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주 그 근본을 잊게 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망각되고, 준수해야 하는 의무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의무는 역지로 지켜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역지로 지켜져야 하는 의무는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존중하고 관계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그

들에게는 최대의 사명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해방시키신 사랑의 하느님은 그들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말로만 사랑의 하느님을 섬겼을 뿐, 실상 그들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잘못을 밝히고 고발하는 데에 온 신경을 집중시킬 뿐입니다. 사랑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이끌어주는 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충만함과 성숙함은 사라지고 오히려 결함의 인간들만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완성은 단순히 의무감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율법 규정과 법규는 의무 규정 이전에 사랑의 규정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사랑을 알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그 사랑에 보답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율법의 정신을 완성하려고 할 것입니다. 먼저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에 상응하여 율법과 관계 규정을 지키십시오.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마르 7,15).

# 못잊어



최정원 다리아 | 뮤지컬 배우

**연** 휴 때가 되면 꼭 방영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서커스... 지금도 빨간 천막을 쳐 놓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서커스에는 불붙은 커다란 고리를 사자나 호랑이가 통과하는 쇼가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털 달린 동물은 본능적으로 불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런 맹수들이 불타는 고리를 자연스럽게 뛰어넘는 것은 가혹한 훈련이나 먹이 때문만은 아니랍니다. 오랜 세월 함께 생활하며 쌓은 조련사에 대한 믿음이 본능조차 거슬러 불길을 향해 뛰어 들 힘을 준다 합니다.

벌써 30년도 더 지난 어느 날, 어머니는 제 손을 이끌고 명동에 있는 어느 연기학원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동네에서도 다섯 명 이상 관객이 모여야 노래를 했고, 혼자 연기를 한다며 눈물을 철철 흘리며 감정을 잡곤 하던 제가, 그런 학원이 있는지조차 모르던 나이의 제가, 처음 학원 문턱을 넘은 날이었습니다. 당시 내로라 하던 그 학원의 원장실 밖에서 주위 분위기에 기죽어 떨고서 있던 저는 안에서 원장님과 어머니가 나누는 이야기를 훔쳐 듣고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남편도 모르게 딸의 손을 끌고 학원을 찾은 어머니의 오랜 꿈이 바로 배우였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뒤 저는 지금껏 누구에게도 어머니의 비밀을 털어놓지 않았습니

다. 그렇게 학원 등록을 했고, 대여섯 명의 어린 신입생들의

떨리고 설레는 마음을 달래주려는 의미에선지 느닷없이 부모님들의 노래자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노래방 기계는 커녕, 변변한 반주시설도 없던 시절, 차례가 되어 앞으로 나가신 어머니는 패티김의 '못잊어' 를 반주 없이 부르셨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모습과 목소리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마치 당신이 배우가 되어 첫 무대에서 신인 양 어머니는 지그시 감은 눈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어린 딸 아이 앞에서 열창하셨고 저는 그게 어떤 노래인지도 모르면서 그 상황에서 어머니가 내뿜은, 말로는 표현 못 할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끼며 따라 흐느꼈습니다. 제가 아홉 살 때의 일입니다.

지금껏 배우로 살아오면서 배워야 할 가장 커다란 가르침을 그때 그렇게 어머니께 배운 듯합니다. 그것도 처음 연기학원에 다니게 된 첫날에, 학원에서 '못잊어' 를 부르시며 눈물을 흘렸던 어머니는 그날 이후 아직까지도 제게 어릴 적 꿈이 배우였다는 말을 털어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학 입시를 치르던 날이나 큰 작품의 오디션을 보러 가는 날에도 어머니는 단 한 번 따라나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능을 거스를 정도의 커다란 믿음을 갖는 서커스단의 사자처럼 어머니를 믿고 의지합니다. 제게 어머니는 배우인 딸이 평생토록 '못잊어' 교훈을 가슴 속 깊이 심어 준 훌륭한 조련사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배우기 34

## 말기환자에게 진통제를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이거나 신중해야 한다

“수명을 단축시킬 위험이 있더라도, 죽어가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그리고 환자의 죽음을 목적으로나 수단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의 죽음이 예견되고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진통제 사용은 인간의 존엄성에 도덕적으로 부합될 수도 있다” <가톨릭교리서 2279항>.

말기환자의 고통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진통제의 사용은 생명을 단축시킬 위험이 있더라도 죽음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고통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원의 라면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편 신앙 안에서 주님의 수난에 동참하려고 자발적으로 고통을 받아들여려는 환자가 진통제를 거부하는 것도 칭찬할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통제를 사용함으로써 임종자가 의식을 잃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임종자는 자신의 생을 정리하고 가족, 친구와 화해하며 사랑과 이별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완전히 맑은 의식 상태에서 하느님과의 결정적인 만남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복음 65항).

**사제 인사발령** 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은 8월20일(목)에 교구 사제 인사이동을 발표했습니다. 발령받은 사제들은 9월1일(화)에 새 임지로 부임합니다.

성명	전임지	새임지
안상인 신부	제13동작지구 지구장 겸) 흑석동 본당 주임	원로사목자
김충수 신부	여의도동 본당 주임	암사동 본당 주임
최선웅 신부	상계2동 본당 주임	여의도동 본당 주임
정광웅 신부	제15강서지구 지구장 겸) 등촌1동 본당 주임	가락동 본당 주임
김영호(미켈)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원로사목자
유병일 신부	이태원 본당 주임	영신수련 담당
박노현 신부	가락동 본당 주임	방학동 본당 주임
최영식 신부	가톨릭중앙의료원 원장	안식년
박기주 신부	중견사제연수원 원장	제14영등포·금천지구 지구장 겸) 대방동 본당 주임
유원봉 신부	송천동 본당 주임	상계2동 본당 주임
김영국(요셉) 신부	안식년	학교법인가톨릭학원
염수의 신부	안식년	잠원동 본당 주임
정의덕 신부	방학동 본당 주임	상도동 본당 주임
최기섭 신부	대신학교학장 겸) 사제평생교육원 원장	면) 사제평생교육원 원장
홍문택 신부	제14영등포·금천지구 지구장 겸) 대방동 본당 주임	가톨릭청소년법인(대안학교)
김무현 신부	공릉동 본당 주임	안식년
이철호 신부	제12서초지구 지구장 겸) 서초동 본당 주임	중견사제연수
소윤섭 신부	다산의 집	해외선교
박항오 신부	안식년	중곡동 본당 주임
김윤태 신부	제8성동·광진지구 지구장 겸) 구의동 본당 주임	중견사제연수
이범주 신부	암사동 본당 주임	정릉4동 본당 주임
임병헌 신부	안식년	제12서초지구 지구장 겸) 서초동 본당 주임
정월기 신부	해외유학	중견사제연수
김호영 신부	중견사제연수	안식년
이원용 신부	중견사제연수	독산동 본당 주임
원종철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사제평생교육원 원장
탁현상 신부	후암동 본당 주임	중견사제연수
구본영 신부	홍제동 본당 주임	세종로 본당 주임
김용봉 신부	안식년	홍제동 본당 주임
이경훈 신부	상도동 본당 주임	제13동작지구 지구장 겸) 흑석동 본당 주임
이찬일 신부	해외연수	송천동 본당 주임
박원주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태릉 본당 주임
전형의 신부	구로1동 본당 주임	이태원 본당 주임
황철안 신부	면목4동 본당 주임	염리동 본당 주임
이기우 신부	해외연수	중견사제연수
강사집 신부	독산동 본당 주임	공릉동 본당 주임
최종건 신부	안식년	구로1동 본당 주임
홍근표 신부	세종로 본당 주임	중견사제연수
이경상 신부	학교법인가톨릭학원, 겸) 교구 법원장	면) 교구 법원장
이승찬 신부	중견사제연수	포이동 본당 주임(7월10일자)
안광민 신부	중곡동 본당 주임	면목4동 본당 주임
백성호 신부	김수환 추기경 비서 겸) 서울대학교병원 원목	안식년
유도마스 신부	태릉 본당 주임	중견사제연수
봉재종 신부	정릉4동 본당 주임	안식년
조재연 신부	중견사제연수	무악재 본당 주임
박선용 신부	안식년	교구 법원장
유종만 신부	등촌3동 본당 주임	제15강서지구 지구장 겸) 등촌1동 본당 주임
방정영 신부	자양2동 본당 주임	교포사목
이상철 신부	중견사제연수	마장동 본당 주임
배도동 신부	안식년	자양2동 본당 주임
권홍식 신부	청계시장(준) 본당 주임	대치3동 본당 주임
허근(나서) 신부	염리동 본당 주임	후암동 본당 주임
황경원 신부	대치3동 본당 주임	중견사제연수
정영진 신부	서초3동 본당 주임	중견사제연수

성명	전임지	새임지
이철희 신부	무악재 본당 주임	등촌3동 본당 주임
김동춘 신부	해외유학	대신학교
백광진 신부	안식년	중견사제연수
조해봉 신부	중견사제연수	환경사목 겸) 도농(우리농촌살리기) 담당
최원석 신부	안식년	통합사목연구소
이창준 신부	사회사목부	한남동 본당 주임
조대현 신부	환경사목 겸) 도농(우리농촌살리기) 담당	중견사제연수
박명근 신부	마장동 본당 주임	제8성동·광진지구 지구장 겸) 구의동 본당 주임
김형찬 신부	한남동 본당 주임	안식년
한영만 신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통합사목연구소
김영국(앤서니) 신부	포이동 본당 주임	휴양(7월10일자)
김원경 신부	교구 사무처 차장	안식년
김경하 신부	일반병원사목부	안식년
정운필 신부	안식년	서초3동 본당 주임
박선환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교구 사무처 차장
이남신부	사제평생교육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
황영욱 신부	중곡동 본당 보좌	청계시장(준) 본당 주임
신희준 신부	교구장 비서	사제평생교육원
김희철 신부	해외연수	중곡동 본당 보좌
김효석 신부	해외유학	대신학교
이도행 신부	교구 청소년국 차장	대치2동 본당 보좌
이석균 신부	군중	사제평생교육원
안향신부	군중	성서사목부 성서못자리 담당
민경일 신부	다산의 집	사회사목부
안원진 신부	대치2동 본당 보좌	교구장 비서
백형기 신부(좌)	노량진수산시장(준) 본당 주임	작은형제회(2월10일자)
황지원 신부(좌)	작은형제회	노량진수산시장(준) 본당 주임(2월10일자)
변종승 신부(복)	새남터 본당 보좌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7월13일자)
오은규 신부(복)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새남터 본당 보좌(7월13일자)
전수중 신부(복)	구로3동 본당 보좌	살레시오회(7월15일자)
박영주 신부(복)	살레시오회	구로3동 본당 보좌(7월15일자)

**▶새사제 인사발령 → 새사제학교**

양경모·오석준·이은수·하성용·나종진·신광호·김현진·박태민·박진수(요엘)·서성훈·장이태·김승현(스테파노)·김형균·윤병우·박민재·김승현(베드로)·조성동·손태진·조창현·장경근·유상혁·손호빈·정성원·박도진·차마우나·박진수(사도요한)·박민우 신부

**▶각 위원회 위원**

1. 사제 평의회 위원  
임) 박기주·임병헌·이경훈·유종만·박명근·이동의 신부  
면) 안상인·정광웅·홍문택·이철호·김윤태·최영식 신부
2. 교구 재경평의회  
임) 임병헌·이강구·송천오 신부, 최철수(가톨릭경제인회 회장)  
면) 정의덕·이철호·김윤태 신부
3. 미사예물위원회·교구 납부금위원회 위원  
임) 임병헌·송천오 신부  
면) 이철호·김윤태 신부
4. 사제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임) 원종철 신부  
면) 박기주·이남 신부
5. 행정 중재 조정위원회 위원  
임) 임병헌 신부  
면) 김윤태·이경상 신부
6. 건축위원회 위원: 임) 양권식 신부
7. 서울대교구 가톨릭 유아교육기관 운영 위원회 위원  
임) 최동진·김성만·전원 신부, 류경애·이경자 수녀  
면) 홍근표·윤일선·이상철 신부, 안영숙·한명숙·한상옥 수녀

**▶교구법원 임원 임명(9월1일자)**

임) 박선용(법원장)·박동균(부 법원장)·김효석(재판관) 신부  
면) 이경상 신부(법원장)

소식

대구대교구장 최영수 대주교 사임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건강상의 이유로 교구장직 사임을 청원한 대구대교구 최영수 대주교의 사임 의사를 받아들였습니다. 최대주교는 2007년 3월29일부터 제9대 대구대교구장직을 수행해왔습니다.

2009 주교회의 여성소위원회 세미나

주교회의 여성소위원회는 '교회 안에서의 의사소통과 여성'을 주제로 9월11일(금) 오후 2시~4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강당 4층에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 문의: 460-7632

서울대교구 예비신학생 9월 모임

학년	때	곳	문의
중1	9월13일(일) 9시30분	성신교정 대성당	010-2742-2123
중2	9월20일(일) 9시30분	성신교정 대성당	010-9954-2123
중3	9월6일(일) 9시30분	성신교정 대성당	010-2577-2123
고1	9월6일(일) 9시30분	성신교정 진리관 1강의실	010-9961-2123
고2	9월20일(일) 9시30분	성신교정 진리관 1강의실	010-9972-2123
고3	9월13일(일) 9시	성신교정 대건관 서편성당	010-8803-5695
일반	9월13일(일) 9시	성신교정 진리관	010-8803-5695

천주교 서울대교구 직원 채용 공고

서울대교구 방학동성당 관리인 모집

-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남교우(가스, 보일러, 전기 관련 자격자 우대) / 9월15일(화)까지 접수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주민신부 추천서
- 문의: 3491-3131 성당 사무실(제출서류 반환 안 됨)

이번 주간 기억할 사제와 묘소

- 9월1일 봉경중 요한 신부(44세) 1999년, 용인
- 9월2일 김승훈 마티아 신부(64세) 2003년, 용인
- 9월5일 김제근 토마스 신부(47세) 1958년, 용산
- 9월5일 고비오 비오 신부(30세) 1991년, 용인

본당 관할구역 재조정

- 조정전: 가락2동 본당(관할구역: 가락2동 전지역)
- 조정후: 가락2동 본당(가락2동 123-165번지), 문정동 본당(가락2동 123-165번지 제외한 전지역)

본당명 개명

중서울	창4동 → 창5동
동서울	잠실5동 → 잠실3동 / 대치3동 → 대치성모탄신
서서울	낙성대 → 행운동 / 난곡 → 난곡동 / 봉천동 → 중앙동
	봉천1동 → 신림성모 / 봉천7동 → 낙성대동 / 신림동 → 서원동
	봉천5동 → 성현동 / 봉천8동 → 쑥고개
	봉천11동 → 인현동 / 신림4동 → 신사동성베드로

서울대교구 용인묘원 성묘 안내

승차권을 묘지관리과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승급 가능, 승급 전후 전화연락). 용인천주교공원묘원과 평내(금곡)천주교공원묘원 묘원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분은 관리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727-2225, 031)334-0807

- 용인묘원 미사: 9월27일(일) 오전 10시30분
- 승차권예매: 9월1일(화)부터 선착순 / 계좌번호: 우리은행 454-003267-13-159 (재)천주교서울대교구(1매 9천 원)

교구청 알림

향심기도(월피정)

- 지도: 이승구 신부 / 곳: 상지 피정의 집
- 대상: 누구나 / 주최: 사목국 향심기도회
- 문의: 010-8674-1105(www.hyangsim.com)

직장인	9월6일(일) 9시30분-16시	회비:
일반인	9월7일(월) 9시30분-16시	1만5천원

사목국 성서사목부 '성서못자리' 강좌

- 때, 곳: 8월31일부터 매주(월) 15주간, 명동 성당 내 교육관 / 문의: 775-5789(당일 접수)
- 오전반: 10시30분~12시30분, 오후반: 19시~21시
- 회비: 청년못자리 4만원, 나눔터 5만원(교재포함)

청년못자리	이스라엘 역사	오후반	조용철 신부
나눔터강좌	마르코	오전반	최예원 신부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 때: 9월4일(금) 오후 2시 / 문의: 727-2123, 4
-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천주교 농부학교 4기생 모집

- 내용: 땅과 함께 하는 농사일을 통해 '농부이신 하느님'을 느끼고 생태적인 삶을 살고자 함
- 대상: 지역에서 생태순환적인 삶과 가족농(소농)을 추구하는 교우 40여 명(선착순 접수)
- 때, 곳: 9월22일~10월27일 매주(화·목) 오후 7시~9시30분, 명동 전진상교육관 별관
- 회비: 1인 12만원(부부 18만원, 우리농·환경 후원회 원 10%할인, 현장체형 실습비 별도) / 9월11일까지
- 문의: 727-2283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사르트르 성당의 예술과 신앙 강좌

- 때, 곳: 9월7일(월) 오후 3시~5시, 가톨릭회관 205-3호(무료 청장) / 727-2336, 7 평화화랑

시성 25주년 '순교자 현양특강과 미사, 순교극 공연'

- 때, 곳: 9월3일·10일·17일 매주(목) 14시~16시30분, 명동대성당 및 성모동산
- 문의: 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회비 없음)

때	강사 및 집전	순교극
9월3일	이병호 주교	받아 주소서
9월10일	조규만 주교	피어나라 순교자들의 꽃이여
9월17일	박정일 주교	없음

서울대교구 전화번호 안내: www.catholic.or.kr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9. 6. 14시	평창동 수련소	011-9852-9817
살레시오 수녀회	9. 13. 14시	지원소수녀원(7호선신풍역)	011-560-4658
성령 선교 수녀회	9. 6. 14시-17시	명륜동 본원	010-5730-6322
성 골롬반 외방 선교회	9. 6. 10시-16시	골롬반 선교센터 2층	010-2895-6430
성 바오로 딸 수도회	9. 5. 15시	미아리 본원	011-232-1611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서울 포교 성 베네딕도 수녀회	9. 6. 14시	돈암동 본원	010-6259-6364
성 베네딕토회 왜관 수도원	9. 5. 16시-6. 14시	수도원 본원	010-8353-2323
파티미의 성모 프란치스코 수녀회	9. 6. 14시	수지 본원	011-9176-1212
한국 외방 선교 수녀회	9. 6. 14시-17시	보문동 수녀원	011-9319-1690
한국 외방 선교회	9. 6. 13시	한국외방선교회본원	010-4555-7526



문화마당

평화와 치유

바오로딸 | 59분, 55분 | 2CD 1만5천 원



‘우울증 기쁨으로 바꾸기’ 책 내용 중 심신을 달래는 음악 부분에서 발췌한 음악으로, 각박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도록 도와준다. 우울하거나 분노가 치밀 때, 불안한 기분이 지속될 때, 스트레스나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도움을 준다.

Present

성바로 | 61분 | CD 1만5천 원, TAPE 6천 원



기타리스트 배장흠을 중심으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클라리넷, 피아노와 키보드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젊은 연주자 7명이 모여 클래식을 비롯한 영화음악, 월드뮤직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자신들만의 색깔로 재창조하여 연주했다.

평화를 주옵소서

바오로딸 | 37분 | CD 1만 원



가톨릭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사랑받는 4개의 CCM송과 7곡의 가톨릭 성가를 원래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면서 피아노 콰르텟의 매력인 현과 건반의 조화가 돋보인다. 기도 모임에서 찬미, 감사, 봉헌으로 초대하는 데 도움을 준다.

Affetuoso(아페투오소) - 조진희 리코더 앨범

성바로 | 41분 | CD 1만 원, TAPE 5천 원



조진희 교수의 리코더 앨범으로 전통 바로크 음악으로 구성하였으며, 자신이 직접 제작한 바로크 리코더로 연주했다. 인간 감정의 묘사나 표현을 특징으로 하는 바로크 음악을 듣고 싶노라면, 내면 안에서 따뜻함이 솟아오름을 느낄 수 있다.

노래로 떠나는 복음여행- 권성일 3집

바오로딸 | 51분 | CD 1만2천 원



신곡 ‘사랑’을 비롯하여 12곡으로 구성된 이 앨범은 듣는 이들을 복음 여행으로 초대한다. 각 곡마다 복음의 중심 메시지를 반복하여 마음에 복음말씀을 새기도록 도와준다. 기도 모임이나 공동체 모임에서 부르기에 좋게 구성되어 있다.

한일합작 뮤지컬 ‘침묵의 소리’

- 입장권: VIP 5만 원, R석 4만 원, S석 3만 원 | 예약 및 문의: 399-1114-6
- 공연시간: 화~금 19시30분 / 토 15시·19시 / 일 16시



감성을 자극하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테라피 뮤지컬 ‘침묵의 소리’가 9월4일(금)~20일(일), 세종문화회관 세종M씨어터에서 공연한다. 한·일 문화예술교류공연으로 티 없이 맑고 젊은 영혼들의 태평양전쟁 징용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전쟁이 갈라놓은 안타까운 사랑의 결말의 내용을 담았다.

전화예매한 뒤 공연 당일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시 10% 할인한다(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3인까지 할인가능).



구약성경 통권노트

김혜윤 지음 | 생활성서 | 392쪽 | 1만5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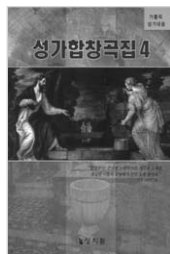
꼭 알아둬야 할 핵심만을 모아 쉽게 정리한 구약성경 안내서이다. 구약성경 46권, 각 권에 관한 성서적·신학적 토대를 바탕으로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알기 쉽게 전하며 성경의 구체적인 윤곽을 간결하면서도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다.



남해에서 부친 편지

함영권 지음 | 기쁜소식 | 304쪽 | 1만2천 원

미국 가톨릭대학에서 10년 동안 철학공부만 하던 저자가 남해성당에 부임해 매 주일 남해 신자들과 친지, 친구들에게 부쳤던 편지를 한데 묶었다. 자본주의에 관심 없이 농사와 바다 일이 소중하고, 이웃이 소중한 남해 사람들과의 이야기다.



성가합창곡집 4

상지원 편저 | 248쪽 | 1만1천 원 | 구입문의: 3663-4544

‘성가합창곡집’ 시리즈 4번째 권으로 1~3권에 미처 수록되지 못한 명곡들 중 우리 일상 전례에서 쉽게 부를 수 있는 곡들을 담았다. 총 36곡으로 성탄시기, 부활시기, 연중시기 등 가리지 않고 1년 동안 각종 특송으로 연주가 가능하다.



가정의 재발견

심흥보 지음 | 성바로 | 94쪽 | 5천 원

서로 사랑하는 가족을 이루어 가정이라는 시각에서 창세기를 살펴보고 주님을 모시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상대방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도를 통해 서로의 십자가를 나누어지며 가정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도와준다.



헨리 나웬의 마지막 일기

헨리 나웬 지음 | 바오로딸 | 344쪽 | 1만2천 원

저자가 9년 동안 몸담고 있는 ‘새벽’ 라르슈 공동체를 떠나 안식년을 보내면서, 선종 전 1년간 가족과 친구들을 방문하며 쓴 마지막 일기다. 하느님과 이웃과 자신과의 관계 등 삶의 전반을 돌아보고 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

황재선(야고보) 피아노 독주회

· 입장권: 전석 1만 원 | 예매 및 문의: 761-1587



신정동성당 청년성가대 지휘를 맡고 있는 ‘황재선(야고보) 피아노 독주회’가 9월14일(월) 오후 7시30분에 영산그레이스홀에서 열린다. 본 공연은 영산그레이스홀 개관 페스티벌로, Passion & Love(열정과 사랑)을 주제로 쇼팽과 리스트, 라흐마니노프의 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전화예매한 뒤 공연 당일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시 50% 할인한다(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4인까지 할인가능).